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0. No. 7, pp. 213-224, 2019

ISSN 2233-4890
https://doi.org/10.15207/JKCS.2019.10.7.213

청소년들의 부모애착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학업기대와 낙관성의 매개효과

정구철[1], 설미경[2*]
[1]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2]삼육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Influence of Parental Attachment on Learning Flow: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Academic Expectation and Optimism in Adolescents

Goo-Churl Jeong[1], Mi-Kyung Seol[2*]
[1]Professor,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ahmyook University
[2]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ahmy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지지적 학업기대와 청소년의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융합적으로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학생 184명이었다. 연구결과, 첫째, 학업기대와 낙관성은 부모애착과 학습몰입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Bootstrapping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부모의 학업기대와 청소년의 낙관성을 통한 간접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학업기대와 낙관성의 간접효과 간의 차이를 Bootstrapping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와의 건강한 애착 관계는 부모의 지지적 기대를 증가시키고, 청소년들에게는 낙관성을 증진시켜,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학습몰입을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청소년의 학습몰입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모와 자녀의 역할과 기대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애착, 학습몰입, 학업기대, 낙관성, 청소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academic expectations and adolescent's optimism in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al attachment on learning flow.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84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ademic expectation and optimism showed significant full mediation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learning flow. Seco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direct effects of academic expectation and optimism by the bootstrapping metho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healthy attachment relationship with the parents increases the parent's supportive expectancy, improves the optimism for the youth, and improves the learning commitment for effective learning. Finally, we discussed the role and expectations of parents and adolescents in promoting the learning commitment of adolescents.

Key Words : Attachment, Learning Flow, Academic Expectation, Optimism, Adolescent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Sahmyook University Research Fund in 2019.
*Corresponding Author : Mi-Kyung Seol(ohcross@naver.com)
Received May 7, 2019 Revised July 2, 2019
Accepted July 20, 2019 Published July 28, 2019

1. 서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력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학업에 투자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학업 효율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생들의 '학습효율화지수'는 OECD 30개국 중 24위에 불과하다고 보고하고 있다[1]. 학업성취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지만, 그에 이르는 효율적인 과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결과이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학습 과정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요구되는 체력과 피로 등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2].

청소년들의 학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습에 대한 몰입 경험의 중요성을 일부 학자들이 제안하고 있다[3,4]. 학습몰입이란 학습자의 주의가 학습활동에만 자유롭게 사용되어 학업에 완전히 몰두한 상태를 의미한다[5,6]. 학습몰입을 경험하게 되면 학습과정이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몇 시간이 한순간처럼 짧게 느껴지는 시간 왜곡 현상을 경험하고, 외부적 보상이 없더라도 몰입경험 자체로 만족감과 성취감도 얻게 된다[7-9]. 학습몰입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습동기[10], 성취목표[11], 자기결정성 동기[12,13], 자기주도적 학습능력[14], 학업성취[15] 등과 같은 심리 내적 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있고, 가정환경[16], 부모특성[17], 교사특성[18], 학교환경[19]과 같은 심리 외적 변인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된 바가 있다.

몰입의 경험은 내재적 요인과 함께 외재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20], 학습몰입의 개인 내적 변인과 함께 외적 변인을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 가운데 중요한 변인으로 부모애착을 들 수 있다[21]. 애착은 가장 가까운 타인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이며, 아동·청소년에게 있어 주요애착 대상은 부모, 교사, 또래친구, 이웃 등을 들 수 있으나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상은 부모이다[22].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감정은 영유아기 뿐만 아니라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자기가치, 대인관계, 적응 유연성 및 스트레스 조절 등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안정적 기제로 보고되고 있다[23,24]. 이러한 안정된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청소년들이 학습활동에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애착과 학습몰입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애착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학습몰입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11],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증가 되었고, 학업에서의 성취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애착이 학습몰입에 중요한 변수로 예측해 볼 수 있다[25].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적절한 애착관계는 자녀에 대한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방법으로 학업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게 된다. 자신에게 의미있는 중요한 타자인 부모의 기대가 자녀에게 지각되고, 내면화되면서 자아개념과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적절한 학업기대는 자녀의 인지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의 기대수준이 과도하게 높고 압박적인 기대를 보인다면 자녀는 불안, 우울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26]. 반면에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이 형성된 자녀는 부모의 학업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기대가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학업기대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학업스트레스는 낮아지게 되고 학교생활에 적응적이 될 수 있다[27].

긍정적인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부모에 대한 지지적 학업기대와 더불어 청소년 자신의 낙관성을 증진시켜 학습몰입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낙관성은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조망하는 일반화된 기대로서[28],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과 적응적 행동을 촉진시키는 긍정심리학의 한 영역으로 연구되고 있다[29].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경험들의 누적과 반복을 통해 자녀의 낙관성이 형성되고 발달하며[30], 안정적인 성격특성으로 자리 잡는다[31]. 과거 부모로부터 불안정 애착 관계에서 비난과 인정받지 못한 부정적 경험이 있다면, 현실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 비관적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안정적 애착 가운데 정서적 지지와 사랑을 받은 자녀는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현실에 대해 낙관적으로 지각하게 된다[32]. 이러한 낙관적인 사람은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어서 학교생활에 대한 낮은 스트레스를 보이고, 학교생활 적응수준이 높으며[33], 학업적으로 학습동기를 유발시키고[34], 학업몰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35,36].

학벌주의가 만연한 한국 사회의 부모들은 자녀를 상위권 대학에 합격시키기 위해 학업성취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 과도한 기대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저하시키고, 건강과 행복과 같은 중요한 개념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들의 부모-자녀 간의 애착관계와 학습몰입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부모의 기대와 청소년 자신의 낙관적 태도와도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이 학습심리와 관련되거나, 개인 중심의 심리적 변인을 사용하는 등 개별적인 학문 분야 속에서 관계성만을 검증하고 있으며, 부모의 학업기대와 낙관성을 포함한 가족학 및 아동학, 교육학, 심리학에 걸친 융합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학습에 대한 내재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에 재미를 느껴 몰입할 수 있도록, 학습몰입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모와의 애착관계와 기대, 그리고 청소년의 내적 낙관성을 측정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교육학적인 학습몰입에 대해 가족학적인 애착관계와 부모의 기대, 그리고 청소년 자신의 심리학적 낙관성을 함께 융합하여 측정하고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학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학습에 대한 내재동기를 높일 수 있는 심리학적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부모와의 애착관계와 학습몰입의 관계

학습몰입은 학업에 대해 부담과 스트레스가 아닌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흥미와 내재적 학습 동기로 작용할 수 있어 자아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몰입이란 어떤 활동에 빠져서 집중하는 상태로 행동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최적의 경험을 의미한다. Csikszentmihalyi는 몰입의 구성요소를 도전과 능력의 균형, 자의식 상실, 시간 감각의 왜곡, 과제에 대한 집중, 자기 목적적 경험, 통제감, 명확한 목표, 행위와 의식의 통합, 구체적인 피드백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요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상호의존적으로 발생하는 심리적인 상태이며 인지적 요소와 더불어 정의적인 요소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개념이다[6]. 청소년들에게 학업은 스트레스원 중의 하나이지만, 몰입의 경험은 학습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경험하도록 한다.

최근 들어 몰입의 중요성이 학습상황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외적 보상이 없더라도 학습에 대한 몰입경험 자체가 만족감이 되어 내재적 동기를 통해 학습에 대한 만족과 기쁨, 성취감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몰입은 개인 내적 변인 및 환경적 변인들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심리내적 요인과 함께 심리외적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3,19]. 청소년기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변인들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관련된 변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생애 초기 형성된 부모와의 애착관계와 학령기에 접어든 후 부모의 학업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부모와의 긍정적인 애착관계와 관련되어 발달하는 청소년 자신의 심리적 특성인 낙관성은 학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해 강건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30]. 이러한 관계들을 고려해볼 때 부모애착은 학습몰입의 중요한 원인이 되며, 청소년기 낙관성의 증진과 더불어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학업기대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애착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형성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의미한다.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타인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통해 자기와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내적 표상을 만들고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한다. 초기에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자녀는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내적작동모델을 발달시켜 세상을 보다 안정적으로 바라보고,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자녀는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내적작동모델을 통해 세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애착의 내적작동모델은 전 생애 동안에 영향을 미쳐 자아개념, 대인관계 등 개인의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11,23]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애착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부모애착은 인지적 학습몰입과 정의적 학습몰입에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점에서[11], 부모애착은 학습몰입의 유의한 예측변수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기의 안정적인 부모애착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고 부모를 지지기반으로 인식하여서 학습에 대한 몰입과 학습에 대한 태도가 안정적이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청소년기의 학습몰입에 대한 중요한 변인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2 부모의 학업기대와 학습몰입의 관계

학업기대란 부모가 자녀에게 학업에서 성취했거나 성취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포부수준을 의미한다. Campbell은 학업기대의 구성요소로 지지기대와 압박기대를 제시하였다[37]. 부모의 압박기대는 부모가 자녀의 정서와 행동을 통제하며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자녀의 학습에 대한 과잉 관심을 나타내며 학습의 효

과를 위해 거칠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지지적 학업기대는 부모가 자녀의 성취동기를 긍정적이며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지지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태도로 학업을 격려하고 지지하면 자녀의 내적 학습동기가 높아지며 학업적 수행도 향상되었다[38]. 선행연구에서 자녀의 학업능력이나 행동특성 및 장래성 등의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측정한 부모기대 요인은 유의하게 학습몰입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부모의 기대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이 자신의 정서조절을 통해 학습몰입에도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39].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 기대가 학습몰입과 관련되며, 정서에 대한 자각이나 정서 재평가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의 정서조절을 향상시켜 학습몰입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통한 지지적 학업기대를 지각한 청소년들의 학습몰입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2.3 청소년의 낙관성과 학습몰입의 관계

낙관성이란 미래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기대 또는 낙관적 신념과 성향을 의미한다. 낙관성은 성향적 낙관성과 낙관적 설명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향적 낙관성은 시간이 지나도 일관성있게 나타나는 성격적 특성으로 미래에 대해 나쁜 사건보다는 좋은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한 보편적인 기대감을 나타낸다. 이와 달리 낙관성 설명양식은 현재 당면한 문제가 일시적인 것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넓은 범위에서 볼 때 성향적 낙관성보다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외부, 환경 등의 귀인으로 자신을 보호하게 된다[28].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학업 스트레스는 자신의 역량에 대한 의심과 학업의 지속성에 대한 동기를 낮추고, 더 나아가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위험한 요인이다[27]. 청소년의 낙관성은 개인이 역경과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무엇인가 이루려는 원동력과 동기이며, 이러한 낙관성은 학업수행과 학업에 대한 기대와 대처방식, 스트레스, 건강 등 학업과 학교적응에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과 강하게 관련되어 있다[35]. 이러한 낙관성은 부모와의 친밀감을 통해 발전하고, 학업동기를 지속시키며, 학교생활 적응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32].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견디고, 학업에 대한 내적 동기를 유지하며, 이를 통해 학업에 대한 집중과 몰입을 일으키기 위해 청소년의 낙관성을 매우 중요한 심리내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자녀의 낙관성이 어머니의 낙관성과 관련이 있고[33],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통해 청소년의 낙관성이 형성된다는 점에서[30], 부모애착과 학습몰입 간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들이 학습에 대한 재미를 느껴 몰입할 수 있도록 학습몰입을 증진시키기 위해 부모와의 애착관계와 기대, 그리고 청소년의 내적 낙관성을 구조화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의 모형은 부모-자녀 간 애착관계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부모의 지지적 학업기대 및 청소년의 낙관성을 통한 간접효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Fig. 1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른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부모-자녀 간 애착관계는 학습몰입에 직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부모-자녀 간 애착관계는 부모의 지지적 학업기대를 통해 학습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부모-자녀 간 애착관계는 청소년의 낙관성을 통해 학습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부모-자녀 간 애착관계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지지적 학업기대와 낙관성의 매개효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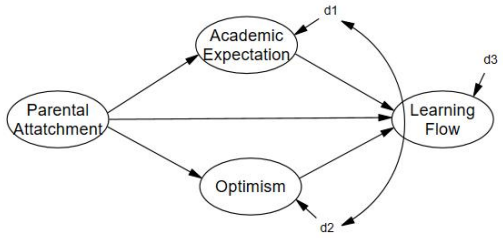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4. 연구 방법

4.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학생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을 제외한 18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성별은 남학생이 87명(47.3%), 여학생이 97명(52.7%)이었으며, 중학생이 84명(45.7%), 고등학생이 100명(54.3%)이었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설문조사 실시 전 학교의 허락을 득하였으며, 설문조사는 현직교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교사를 직접 만나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설문에 응답한 내용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가 사용되지 않고, 설문 응답에 대해 강제성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음을 명료하게 전달하도록 교육하였다. 그리고 설문지의 지문에 이러한 사항을 명기하였다. 설문조사 후에는 응답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4.2 연구 도구

4.2.1 부모애착

부모애착 척도는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의 개정본(IPPA-R)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40]. 부모애착 척도는 부모에 대한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차원의 애착을 측정하며, 신뢰감(10문항), 의사소통(9문항), 소외감(6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문항은 하위요인별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각각 25문항씩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다. 일부 문항과 하위요인 중 소외감 요인을 역 채점하였으며, 총합척도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의 수준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애착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부-애착이 .93, 모-애착이 .91이며, 전체 문항은 .9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4.2.2 학업기대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Campbell[26]의 Inventory of Parental Influence(IPI)를 번안·수정하여 재구성한 Oh[3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압박기대와 지지기대의 2개의 하위요인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그 중 지지기대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지지적 학업기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지지적 학업기대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부 지지적 학업기대 .86, 모 지지적 학업기대 .86, 전체 문항은 .93으로 높게 나타났다.

4.2.3 낙관성

결과에 대해 일반화된 긍정적 기대를 하는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Scheier, Carvar와 Bridge[41]가 개발한 삶의 지향 검사 개정판(Life Orientation Test-Revised: LOT-R)을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42]. 이 척도는 6개의 낙관성 측정 문항과 낙관성 측정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4개의 모호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낙관성 측정 문항은 각각 3개의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모호문항을 제외하고, 부정문항은 역채점한 후 총합척도를 산출하였다. 척도의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낙관성 척도의 모호 문항을 제외하고 총 6문항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0으로 나타났다.

4.2.4 학습몰입

청소년의 학습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Kim[12]이 중·고등학생에게 적합하게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행동과 의식의 통합, 구체적인 피드백, 과제에 대한 집중, 통제감, 명확한 목표, 시간감각의 왜곡, 자기목적적 경험, 도전과 능력의 조화, 자의식 상실의 9개 하위요인,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습몰입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4로 높게 나타났다.

4.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ver. 23.0) 프로그램과 AMOS(ver.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된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값을 산출하여 제시하였고,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는 분산분석(ANOVA)을 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변

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연구변수 간 구조적 관계와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5. 연구결과

5.1 부모애착, 학업기대, 낙관성 및 학습몰입의 평균과 표준편차

청소년들의 부모애착, 학업기대, 낙관성 및 학습몰입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값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주요 연구변수들의 정규성을 왜도와 첨도로 분석한 결과 모두 절대값이 2보다 작게 나타나 연구 변수들의 정규성을 가정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earch variables

Variable	M	SD	S_k	K
Parental attachment	3.80	.57	−.53	−.02
Father	3.74	.64	−.78	.47
Mother	3.86	.54	−.57	.27
Academic expectation	3.51	.53	−.24	.35
Father	3.51	.54	−.25	.33
Mother	3.50	.54	−.32	.50
Optimism	3.34	.67	−.09	.30
Learning flow	3.45	.60	.01	−.11
Harmony of technic and challenge	3.44	.78	−.06	−.10
Harmony of action and consciousness	3.50	.90	−.56	.11
A definite goal	3.77	.87	−.43	−.10
Specific feedback	3.93	.71	−.13	−.64
Focus on the assignment	3.60	.74	−.10	−.34
Control	3.07	1.01	−.29	−.41
Loss self-consciousness	3.24	.84	−.24	.07
Time sense distortion	3.74	.89	−.36	−.46
A self-directed experience	2.84	.97	−.01	−.48

S_k=Skewness, K=Kurtosis.

5.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애착, 학업기대, 낙관성 및 학습몰입의 차이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들의 부모애착, 학업기대, 낙관성 및 학습몰입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낙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F=6.00, p<.05), 학교 등급 및 형제 수에 따른 주요 연구 변수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친구 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친구 수가 5명 이

Table 2. Differences in parental attachment, academic expectation, optimism, and learning flow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Parental attachment		Academic expectation		Optimism		Learning flow	
	M(SD)	F	M(SD)	F	M(SD)	F	M(SD)	F
Gender								
Male	3.76(.56)	.64	3.46(.59)	1.35	3.47(.62)	6.00*	3.48(.56)	.58
Female	3.83(.58)		3.55(.48)		3.23(.69)		3.42(.65)	
School								
Middle school	3.75(.61)	1.03	3.46(.52)	1.04	3.24(.70)	3.46	3.41(.58)	.54
High school	3.83(.52)		3.54(.54)		3.43(.64)		3.48(.62)	
Number of siblings								
1	3.80(.58)	.99	3.44(.53)	.16	3.31(.41)	.03	3.42(.59)	.16
2	3.83(.56)		3.51(.52)		3.34(.68)		3.47(.62)	
3 over	3.69(.57)		3.51(.57)		3.35(.76)		3.41(.59)	
Number of friends								
Less than 5[a]	3.71(.52)	1.43	3.48(.50)	.21	3.12(.69)	6.82**	3.42(.57)	.42
6−7[b]	3.90(.51)		3.48(.49)		3.34(.59)	a<c	3.39(.59)	
More than 8[c]	3.83(.61)		3.53(.57)		3.51(.64)		3.49(.63)	
Economic class								
Upper[a]	3.90(.49)	5.65**	3.58(.48)	2.93	3.40(.66)	1.23	3.50(.60)	2.07
Middle[b]	3.66(.57)	a>b,c	3.39(.51)		3.24(.60)		3.31(.57)	
Lower[c]	3.51(.83)		3.38(.82)		3.24(.92)		3.53(.66)	
Academic grade								
Upper[a]	3.81(.47)	.82	3.49(.53)	.11	3.35(.65)	.48	3.67(.51)	17.50***
Middle[b]	3.74(.58)		3.53(.53)		3.39(.63)		3.58(.60)	a,b>c
Lower[c]	3.86(.62)		3.49(.55)		3.27(.74)		3.10(.53)	

Note. Alphabet is the result of post-test by scheffe.
**p<.01, ***p<.001

하인 경우보다 8명 이상인 경우가 낙관성이 유의하게 높았다(F=6.82, p<.01). 경제수준의 경우 상위 집단이 중위나 하위집단보다 부모애착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5.65, p<.01), 성적이 상위권과 중위권인 학생들이 하위권인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학습몰입이 높았다(F=17.50, p<.001).

5.3 부모애착, 학업기대, 낙관성 및 학습몰입 간의 상관관계

부모애착, 학업기대, 낙관성 및 학습몰입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부모애착은 부모의 지지적 학업기대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강하게 있었고(r=.71, p<.001), 낙관성(r=.27, p<.001) 및 학습몰입(r=.21, p<.01)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의 지지적 학업기대는 낙관성(r=.28, p<.001) 및 학습몰입(r=.29, p<.0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고, 낙관성도 학습몰입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29, p<.001).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research variables (N=184)

Variable	(1)	(2)	(3)
(1) Parental attachment	1		
(2) Academic expectations	.71***	1	
(3) Optimism	.27***	.28***	1
(4) Learning flow	.21**	.29***	.29***

**p<.01, ***p<.001.

5.4 부모애착, 학업기대, 낙관성 및 학습몰입 간 의 측정모형 분석

부모애착과 학습몰입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업기대와 청소년의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은 측정모형을 먼저 분석한 후, 잠재변수 간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요인계수를 검정하기 위한 모형의 추정방법은 측정변수들의 정규성을 확인하였으므로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법을 사용하였다. 각 잠재변수는 하위요인을 관측변수로 구성하였으며, 낙관성의 경우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요인분석을 통해 산출된 공통성(communality)과 요인계수를 고려하여 균등하게 2개의 문항 묶음을 구성해 관측변수로 사용하였다.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를 가정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84)=289.11$, p<.001, $\chi^2/df=3.44$, TLI=.85, CFI=.88, RMSEA=.116, SRMR=.069로 나타났으며, TLI와 CFI, RMASE 등의 적합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정지수를 고려하여 관측변수의 오차 간 상관을 허용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오차 간 상관은 학습몰입의 9개 관측변수에서만 나타나 수정하였고, 수정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79)=204.86$, p<.001, $\chi^2/df=2.59$, TLI=.90, CFI=.93, RMSEA=.093, SRMR=.061로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4와 같이 측정모형의 잠재변수별 요인계수를 살펴보면, 부모애착과 학업기대, 낙관성의 표준화된 요인계수값은 모두 .79이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몰입의 경우 구체적인 피드백 요인의 표준화된 요인계수가 .4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비표준화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도구의 신뢰도가 높았으며, 이론적 배경에 따른 원 도구의 하위요인이었다는 점에서 제외하지 않고 9개의 요인을 관측변수로 사용하였다. 집중타당도 분석을 위해 구성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와 추출된 분산평균(Average of Variance Extracted: AVE)을 분석한 결과 구성신뢰도는 모두 기준값인 .70이상이었으며, 추출된 분산평균값도 모두 기준값인 .50보다 높게 나타났다. 판별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AVE값과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비교하여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두 변수의 AVE값이 크면 판

Table 4. Factor coefficients of measurement model

Potential variable	Measure variable	B	β	CR	AVE
Parental attachment	Father	1.00	.94	.97	.94
	Mother	.81***	.90		
Academic expectation	Father	1.00	.99	.99	.98
	Mother	.94***	.94		
Optimism	Optimism 1	1.00	.87	.92	.85
	Optimism 2	1.03***	.79		
Learning flow	HTC	1.00	.61	.91	.52
	HAC	1.25***	.66		
	Definite goal	1.05***	.57		
	SF	.69***	.47		
	FA	1.21***	.77		
	Control	1.48***	.69		
	L-SC	1.32***	.75		
	TSD	1.21***	.65		
	S-DE	1.57***	.76		

HTC=Harmony of technic and challenge,
HAC=Harmony of action and consciousness, SF=Specific feedback,
FA=Focus assignment, L-SC=Loss-self consciousness, TSD=Time sense distortion, S-DE=Self-directed experience,
CR=Construct reliability, AVE=Average of variance extracted.
***p<.001.

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모든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각 잠재변수들의 AVE값보다 적게 나타나 판별다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형의 적합도와 요인계수, 집중타당도 및 판별타당도를 고려할 때 측정모형은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5.5 부모애착, 학업기대, 낙관성 및 학습몰입 간 의 구조모형 분석

청소년들의 부모애착과 학습몰입 간의 관계에서 학업기대와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부모애착과 학습몰입 간의 경로계수(B=.07, p=.570)와 학업기대와 낙관성 간의 상관계수(r=.09, p=.30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2개의 경로를 하나씩 제거하며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고려하면서 모형수정을 반복하였다. 최종 2개의 경로계수가 삭제된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81)=206.31$, p<.001, $\chi^2/df=2.55$, TLI=.90, CFI=.93, RMSEA=.092, SRMR=.063으로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χ^2값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차이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Delta\chi^2(2)=1.45$, p=.484), AIC값이 연구모형(AIC=286.86)에 비해 수정모형(AIC=284.31)이 더 적은 값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더 간명한 모형인 수정모형을 채택하였고, 이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Fig.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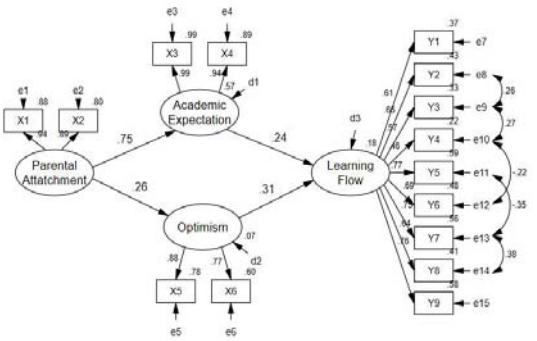

Fig. 2. Modified research model

수정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Table 5와 같이 부모애착은 부모의 지지적 학업기대(B=.68, p<.001)와 청소년의 낙관성(B=.22, p<.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학습몰입에 직접효과는 없어, '부모-자녀 간 애착관계는 학습몰입에 직접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은 기각되었다. 부모의 지지적 학업기대는 학습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B=.21, p<.01), 낙관성도 학습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29, p<.01).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볼 때, 부모의 지지적 학업기대와 청소년의 낙관성은 부모애착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Path coefficients of Modified model

Path	B	β	SMC
Parental attachment → Academic expectation	.68***	.75	.570
Parental attachment → Optimism	.22**	.26	.069
Academic expectation → Learning flow	.21**	.24	.184
Optimism → Learning flow	.29**	.31	

**p<.01, ***p<.001

부모애착과 학습몰입 간의 관계에서 학업기대와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Bootstrapping 방법으로 95% 신뢰구간(95% CI)을 분석한 결과, Table 6과 같이 학업기대를 통한 간접효과(B=.14, 95% CI=.05~.27)와 낙관성(B=.06, 95% CI=.02~.16)을 통한 간접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자녀 간 애착관계는 부모의 지지적 학업기대를 통해 학습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2와 '부모-자녀 간 애착관계는 청소년의 낙관성을 통해 학습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두 간접효과의 차이를 95% 신뢰수준에서 Bootstrapping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ΔB=.08, 95% CI=-.05~.23), 두 간접효과의 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부모-자녀 간 애착관계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지지적 학업기대와 낙관성의 매개효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4는 기각되었다.

Table 6. Indirect effect of modified model

Path	B	95% CI
Parental attachment → Academic expectation → Learning flow	.14	.05~.27
Parental attachment → Optimism → Learning flow	.06	.02~.16
ΔB	.08	-.05~.23

6.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지지적 학업기대와 청소년의 낙관성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검정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학습몰입 간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신뢰감 등으로 구성된 애착은 생애 전체에 걸쳐 발달하면서 학습에 대한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1],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1]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5]에서도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고, 본 연구 결과도 유사하게 지지하였다. 부모-자녀 관계의 안정성은 이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 불안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23,43], 학교생활적응을 비롯하여 학업성취도 및 생활기술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44-46],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모-자녀 애착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과 신뢰를 고려할 때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방법의 개선과 신뢰로운 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모애착과 학습몰입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업기대와 청소년의 낙관성을 투입한 매개효과 모형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지지적 학업기대와 청소년의 낙관성이 매우 중요한 매개변수임을 시사하였다. 특히 여러 선행연구에서 부모애착과 학습몰입 간의 직접적인 영향을 보고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낙관성과 부모의 지지적 학업기대를 통해 간접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나, 부모애착이 학습몰입에 이르는 경로를 일부 밝혔다.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학습몰입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부모의 학업기대와 낙관성이 투입되었을 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부모애착과 학습몰입 간의 관계에서 기대와 낙관성을 통한 경로를 파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부모애착에 포함된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자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자녀와 함께 고민해주는 모습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통의 형태로 인해 청소년들은 부모의 학업기대를 지지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또한 부모님이 청소년의 판단을 신뢰하고, 어려운 점을 말할 수 있도록 돕는 태도는 청소년에 대한 지지적 학업기대로 이어져 청소년의 학습몰입을 돕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관심이 증가되는 데, 부모와의 관계가 부적절할 경우 청소년들은 많은 에너지를 부모에게 기울여야 하는데, 안정된 부모애착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학업에 대한 기대를 지지적으로 지각하여 안정되게 학습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도구의 차이가 있지만 수도권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성취압력(성적기대와 생활압력)과 학습몰입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17], 부모의 성적에 대한 기대는 여러 형태로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부모의 학업기대가 압박을 행사하는 형태가 아닌 지지적 기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모의 지지가 학습몰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의 낙관성을 증가시키며, 낙관성은 학습몰입 경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한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애착과 낙관성을 연구한 결과에서는 애착의 3개 하위요인이 모두 낙관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고[47],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애착과 낙관성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31], 본 연구 결과와 같이 부모애착과 낙관성 간의 정적 관계를 지지하고 있었다. 또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낙관성과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낙관성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몰입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낙관성이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35]. 이처럼 부모-자녀 간의 신뢰롭고 원활한 소통이 형성된 애착관계는 청소년들의 낙관성을 증가시켜 학습몰입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학업성취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청소년의 낙관성과 부모의 지지적 학업기대를 통한 매개효과의 크기는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 보면 청소년과 부모 간의 신뢰로운 관계와 공감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의사소통 관계는 청소년 자신의 낙관성과 더불어 부모의 지지적 학업기대를 향상시켜 안정되게 학습에 몰입하는 경험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면에서 고려해 보면 청소년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재미를 느끼며, 시간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게 되는 경험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가 학업에 대해 압박을 행사하기보다 지지적으로 기대해 주며, 청소년 자신도 미래 성장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부모애착과 학습몰입

간의 상관계수(r=.71)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지만,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약한 상관관계(r=.31~.37)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48]. 선행연구가 여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나타난 차이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상관계수를 재산출하여 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r=.72)과 여학생(r=.72) 집단에서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선행연구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도구의 원판은 두 연구가 동일하였으나, 한국어 번역판을 사용함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도구의 차이 때문인지, 혹은 표집 지역이나 연구 대상의 차이 때문인지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성적이 낮은 집단보다 성적이 높은 집단이 유의하게 학습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학습몰입은 학업성취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5], 본 연구결과도 이를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애착이나 학업기대, 낙관성에서 성적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습몰입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학업성취도에 학습몰입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학습에 대한 몰입 경험이 궁극적으로 학업 성취도의 효율적인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부모의 학업에 대한 지지적 기대나 애착관계 및 낙관성이 학습에 대한 몰입감을 향상시켜 성적과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자녀 관계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하겠지만, 특히 학습몰입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족 변인 중 부모의 학업기대와 개인 변인 중 낙관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와의 적절한 애착관계가 지지적 학업기대로 이어지며, 이러한 지각은 청소년들의 학습몰입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청소년 자신의 낙관성 증진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 기대감은 학습몰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어떻게 학습몰입으로 연결되는지 그 과정을 부모의 기대와 낙관성의 개념을 통해 학문간 융합적으로 밝혔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로 한정되어 연구하였다. 앞서 논의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부모애착과 학업기대 간의 상관관계가 선행연구보다 강하게 나타났고, 지역에 대한 편중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중심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들의 부모-자녀 간의 애착이나 낙관성 등의 도구들이 한국판으로 표준화된 도구가 없고, 각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번안하거나 일부 수정 및 보완을 가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원판을 사용한 연구임에도 비교가 어려운 경우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위한 표준화된 측정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변인과 청소년 개인변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나, 교사 및 교우관계 등 학교변인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학습몰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또래집단이나 학교 환경의 영향도 고려하여 후속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부모-자녀 간의 애착관계가 학습몰입에 이르는 심리적 과정을 일부 밝혔으며, 개인적인 낙관성뿐만 아니라 부모의 지지적 학업기대의 중요성과 역할을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REFERENCES

[1] Y. S. Lee. (2016.5.3.). *Only study time, Efficiency dripping.* Kookminilbo http://news.kmib.co.kr

[2] C. O. Yu, G. J. Park & S. H. Kim. (2015).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ports Activity Participation, Self-resilience, Academic stress, and Adjustment to Life in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22(2),* 109-126.

[3] J. A. Kim & Y. W. Hwang. (2014). A Meta-Analysis on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Learning Flow.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8),* 49-78.

[4] I. B. Suk & E. C. Kang. (200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Learning Flow Scal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23(1),* 121-154.

[5] S. I. Park & Y. K. Kim. (2006). An Inquiry on the Relationships among Learning-Flow Factors, Flow Level, Achievement under On-line Learning Environment. *The Korea Association of Yeolin Education, 14(1),* 93-115.

[6] M. Wong & M. Csikszentmihalyi. (1991).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and the duality of experience. *Journal of Personality, 59(3),* 539-574.

[7] I. B. Suk. (2008). Analyzing Characters of the Learning Flow.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24(1),* 187-212.

[8] J. S. Lee.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cognition

and Learning flow of High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6(2)*, 277-295.

[9] J. H. Lee. (2010).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o learn, metacogni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flow, and school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8(2)*, 67-92.

[10] S. I. Park & Y. K. Kim. (2006). An Inquiry on the Relationships among Learning Flow Factors, Flow Level, Achievement under Online Learning Environment. *The Korea Association of Yeolin Education, 14(1),* 93-115.

[11] W. K. Shin & W. I. Kim. (2018). The Mediating Effect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Learning Flow among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2)*, 91-111.

[12] H. J. Kim. (2012).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Flow.* Docto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13] S. J. Yune & S. H. Kang. (2012). The Effect of Family Strength, Peer Relationship and Self-Determination on Learning Flow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8(3)*, 235-259.

[14] J. Y. Yoo, M. S. Choi & S. Y. Choi. (2010).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Class Climate, Family Challenge-Support, Learning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Learning Flow Perceived by Adolescents.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4(3),* 707-732.

[15] Y. J. Kim & J. H. Park. (2012). The Relationships among Learning Presence, Learning Flow, and Academic Achievement at the Cyber Universitie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3(3),* 143-170.

[16] S. H. Kang. (2012). The Mediating Effect of School Adjust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ngth and Leaning Flow in Middle School Students. *Secondary Educational Research, 60(4)*, 937-961.

[17] S. G. Chae & H. J. Shin. (2016). Influence of Parental Pressur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Learning Flow : Testing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3(3)*, 615-632.

[18] S. J. Lee. (2010). The Path Analysis of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Class Climate, and Learning Flow on Academic Achievement in Elementary Students.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lementary Education, 23(4),* 207-227.

[19] Y. J. Joo, A. K. Chung & H. R. Choi. (2012). Prediction of Learning Flow, School Flow and School Support on Satisfaction and Learning Persistence in Engineering Colleg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49(1),* 30-38.

[20] J. Nakamura & M. Csikszentmihalyi. (2014). *In Flow and the foundations of positive psychology.* Dordrecht: Springer.

[21] M. H. Kwak, Y. H. Kwak & M. N. Ko. (2018). The Structural Analysis of Relations among Parent Attachment, Teacher-student Relationship,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Flow for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11),* 209-229.

[22] A. B. Nickerson & R. J. Nagle. (2004). *The influenc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s on life satisfaction in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Dordrecht: Springer.

[23] E. J. Kim. (2015). A longitudinal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adolescent's parent attachment, self-esteem, anger and stres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6(4)*, 239-266.

[24] S. H. Lee & J. H. Cha. (2018). The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Experience of Flow in Major of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Jou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20(2)*, 219-235.

[25] C. K. Oh & A. L. Jung.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Attach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Learning Flow.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12)*, 57-79.

[26] J. H. Jong, H. H. Chung & G. S. Lee. (2009). Effects of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Test Anxiety: Perfectionism an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Korean Psychology Association, 6(3),* 377-393.

[27] J. H. Lee & J. Y. Lee.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Relationships with Parents or Peer and Cognitive Error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0(2)*, 1113-1126.

[28] M. F. Scheier & C. S. Carver.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3)*, 219.

[29] M. E. Seligman. (1995). The effectiveness of psychotherapy: The Consumer Reports study. *American psychologist, 50(12),* 965.

[30] A. Carr. (2013). Positive psychology: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human strengths.* London: Routledge.

[31] H. S. Kim & Y. C. Noh. (2012).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 in Upp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3(4)*, 1751-1765.

[32] S. T. Moon, M. H. Kim & H. S. Kang. (2014). Effect of Intimacy with Parents, Optimism, Learning Motivation on School Life Satisfaction in Perspective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5(4),* 435-448.

[33] J. Y. Kim & J. Y. Lee. (2007). Effect of mother's optimism and reinforcement on child's adaptability in school: with child's optimism as a mediating variable. *Asian journal of education, 8(3)*, 115-146.

[34] S. H. Lee & H. H. Kim.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Optimism: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s` Achievement Parent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3(4)*, 51-68.

[35] H. I. Cho. (2013). The Analysis of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Optimism, Learning Flow,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7(4)*, 783-803.

[36] J. S. Lee & J. H. Lee. (2011).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eachers' Autonomy, Optimism, Teaching Flow,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Teacher Education, 28(1)*, 66-90.

[37] J. R. Campbell. (1994). Developing cross-cultural/ cross-national instruments: Using cross-national methods and proced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1(7)*, 675-684.

[38] M. H. Oh & Y. O. Jang. (2007). Difference in Adolescent's Academic Motivation by Family Strengths and Parent's Expectation Style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ractical Arts education. 19(4),* 57-74.

[39] E. H. Kim & M. S. Lee. (2015).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Perceived Expectancies of Significant Others, Academic Emotion Regulation, Learning Flow, and Academic Failure Tolera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Education Inquiry, 33(1),* 39-56.

[40] J. Ok. (1998).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Competenc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41] M. F. Scheier, C. S. Carver & M. W. Bridges.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1063.

[42] H. S. Shin. (2005). Testing the Mediating Effect of Coping in the Relation of Optimism and Pessimism to Psychological Adjustment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3)*, 165-192.

[43] J. H. Choi. (2015).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Depression·Anxiety·Suicidal Impulse Adolescence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fidence. *Korean Psychology Association. 2015(8),* 455.

[44] Y. J. Hwang & H. Y. Min. (2012). The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 on School Adjustment Perceived by School-Age Children: Self-Perceived Competence as a Mediating Variabl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2),* 65-73.

[45] Y. A. Jang & J. U. Park. (2013). The Effects of Adolescent's Attachment with Parent and Peer on Their Leadership Life Skills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 11(4),* 189-200.

[46] E. K. Bae & J. Y. Woo. (2014). The relation among academic achievement, leadership life skill, and peer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level of attachment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1(2)*, 299-317.

[47] Y. Zhu, J. Y. Park & Y. E. Chang. (2017).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 on College Life Adjustment by Chinese Students in Korea: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Dispositional Optimism. *The Korea Contents Society, 17(2)*, 82-95.

[48] K. S. Kim & K. H. Kim. (2009). The Effect of Parents' Educational Expectations and Parenting Attitudes to Parent-Child Attachment among Female Adolescents.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1)*, 51-59.

정 구 철(Goo-Churl Jeong) [정회원]

· 2002년 2월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문학사)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심리측정, 학교심리, 중독심리, 건강생활습관
· E-Mail : gcjeong@syu.ac.kr

설 미 경(Mi-Kyung Seol) [정회원]

· 2016년 8월 : 삼육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심리학 석사)
· 2017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상담심리, 학교심리, 군 상담, 건강심리
· E-Mail : ohcross@naver.com